

경와(敬窩) 엄명섭(嚴命涉) 시에 나타난 경학실천과 현실세계

엄 찬 영*

차 례

1. 머리말
2. 엄명섭의 삶과 『경와사고』
 - 2.1. 엄명섭의 삶
 - 2.2. 『경와사고』
3. 엄명섭의 경학실천
 - 3.1. 성학에의 열망
 - 3.2. 경의 공부
 - 3.3. 권학
4. 엄명섭의 현실세계
5. 결론

| 국문초록 |

엄명섭은 근현대 문인이요 유학자로서 일평생 서당을 통하여 초학자를 가르치고 깨우쳐 이끌어주었다. 그는 유고 『경와사고』와 순산일기를 남겼는데, 한시는 초학자에게 지어준 칠언절구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시의 내용은 자신의 경학정신에 입각한 성학에의 열망, ‘경’의 공부, 권학으로 초학자가 학문에 임하는 자세를 강조하였다. 그는 국권이 상실되고, 도학이 멸절되어가고, 좌우의 이념이 대립한 근현대를 살았다. 그는 단발령을 피하여 평생 보발 하였고 의관정제 하는 선비의 면모를 잃지 않았다. 엄명섭은 근현대 유학자의 외길을 오롯이 걸으며 경학이 단절되어가는 현실을 두 눈으로 보며 자신의 경학세계가 사라져가는 안타까움을 호학하며 초학자를 가르침으로 식여 한시로 대변하였다.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핵심어 : 聖學熱望, 敬의 공부, 勸學, 好學, 初學訓蒙

1. 머리말

엄명섭(1906~2003)의 자는 성솔(性率), 호는 경와(敬窩), 본관은 영월(寧越)이다. 그는 근현대 문인이자 유학자로 경학(經學)에 뜻을 두고 호학(好學)하였다. 그는 전통의 유학이 사라져가는 현실에서 후학을 양성하여 사문을 진작하려고 고향 마을에 전통서당 금산서사(金山書舍)¹⁾를 열고 평생 초학자 교학을 실천하였다.

엄명섭에 대한 학계 연구는 2017년 전북대학교 간재학회 학술대회 간재(良齋) 전우(田愚, 1841~1922)의 재전(再傳) 제자연구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이은혁(李銀赫)은 발표주제 「경와 엄명섭(敬窩嚴命涉)의 학문(學問)과 간재사상(良齋思想)의 이해(理解)」를 통해 그의 학문적 성향을 반구(反求)와 지행합일(知行合一), 충신독경(忠信篤敬), 자계(自戒)와 교학(敎學)으로 보았다. 따라서 엄명섭의 전반적인 사상은 간재 전우의 사상을 이해하였다고 파악하였다.²⁾

박혜범은 저서 『역사천자문(歷史千字文)』에서 엄명섭의 금산서사 교재 『동몽독본(童蒙讀本)』 <조선역사천자문(朝鮮歷史千字文)>과 친일파 심형진(沈衡鎭)의 저서 『조선역사천자문(朝鮮歷史千字文)』을 비교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엄명섭이 도학정신에 입각하여 산림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후일을 도모하려는 교학정신이 간재 전우의 처세술과 상통한다고 보았다.³⁾

정옥재는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 심형진(沈衡鎭)의 『조선역사천자문(朝鮮歷史千字文)』 연구(研究)」에서 엄명섭이 1921년 심형진의 『조선역사천자문』

1) 금산서사는 “金山私塾”, “舜山塾”의 異名이 있는데, 스승 崔秉心으로부터 金華譜賢의 뜻이 담긴 命名說을 받고나서 교학처를 금산서사라고 불렀다. 엄명섭, 『敬窩私稿』, <金山書舍 起立及命名說> 이하 본 논문에서는 모두 ‘금산서사’로 통일하였다.

2) 이은혁, 「敬窩 嚴命涉의 學問과 良齋思想의 理解」, 『간재학논총』 제23집, 간재학회, 2017.

3) 박혜범, 『歷史千字文』, 박이정, 2005.

서두(書頭) 16자와 결미(結尾) 16자에 친일적 내용이 담겨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아 훈몽교재로 삼은 것은 그의 탁월한 역사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⁴⁾

2019년 (재)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는 “근현대기 호남유학자의 강학활동 -경와 엄명섭-”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형성은 발표주제 「경와 엄명섭(敬窩嚴命涉)의 수도적(守道的) 유학계승(儒學繼承)과 심 수양(心修養)」에서 먼저 엄명섭이 뜻을 세우고 성인(聖人)을 목표로 하는 학구열을 말하였다. 이어 그의 독신호학하는 정신은 공명심과 이욕보다는 암울한 일제 강점기에서 전통을 계승하며 그 성인의 지혜를 현실에 구현하고자 하였다고 하였다.⁵⁾ 이은혁은 발표주제 「경와(敬窩)의 우환의식(憂患意識)과 수기복례(修己復禮)」에서 한시를 통해 본 그의 우환의식을 크게 도통의 단절과 유가전통의 쇠락(衰落) 두 가지로 간주하였다.⁶⁾ 김기림은 주제발표 「경와 엄명섭(敬窩嚴命涉) 삶과 활동들에 대한 고찰(考察)」에서 경와는 조선 전통식 교육인 서당교육에 대한 감시와 억압이 삼엄하던 시기에 기존의 교육방식으로 향촌의 아동 및 젊은이들을 교육했고 이는 당시 일본의 교육정책에 대한 소극적 저항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⁷⁾

2020년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頤齋研究所)에서 주관한 “조선후기 호남의 역사와 문화” 학술대회에서 이형성은 주제발표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간재학(艮齋學) 계승성 일고 - 금재 최병심(欽齋崔秉心)과 경와 엄명섭(敬窩嚴命涉)을 중심으로-」에서 엄명섭은 학문의 원류를 탐구하지 않으면 고금의 변화를 알 수 없고 입문의 방법을 잃게 된다는 것을 상기하여 오경(五經)과 오서(五書)를 치밀하

4) 정옥재, 「日帝强占期 沈衡鎭의 『朝鮮歷史千字文』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231~232쪽과 237~238쪽 참조.

5) 이형성, 「敬窩 嚴命涉의 守道的 儒學繼承과 心 修養」, 『(2019)문헌세계학술대회』 근현대기 호남 유학자의 강학활동-敬窩 嚴命涉』, 한국학호남진흥원, 2019.

6) 이은혁, 「敬窩의 憂患意識과 修己復禮」, 『(2019)문헌세계학술대회』 근현대기 호남 학자의 강학활동-敬窩 嚴命涉』, 한국학호남진흥원, 2019.

7) 김기림, 「敬窩 嚴命涉 삶과 활동들에 대한 考察」, 『(2019)문헌세계학술대회』 근현대기 호남 학자의 강학활동-敬窩 嚴命涉』, 한국학호남진흥원, 2019.

게 탐독하였다. 31년 동안 깊이 연구하여 편술한 『사서삼경집주언해(四書三經集註諺解)』와 『소학집주언해(小學集註諺解)』 그리고 『독서기의(讀書記疑)』는 공자(孔子)의 술이부작(述而不作)의 정신이 깃든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간재학에 기초하여 유학의 경전을 교학적으로 탐구한 것이라고 하였다.⁸⁾

이상 경와 엄명섭에 대한 선행연구는 그가 근현대 문인이자 유학자임을 시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경와 엄명섭의 삶과 유고 『경와사고(敬窩私稿)』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의 칠언절구 시를 중심으로 엄명섭의 경학실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그의 시에 나타나는 현실세계를 유학자의 우환의식으로 연계하여 근현대 한 유학자의 내심을 조명해보려고 한다.

2. 엄명섭의 삶과 『경와사고』

2.1. 엄명섭의 삶

엄명섭은 1906년 아버지 엄주용(嚴壽容, 1871~1932)과 충주지씨(忠州池氏) 지용재(池龍載)의 딸 사이에서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였다.⁹⁾ 그의 학문적 입지는 할아버지 만오공(晩悟公) 엄일영(嚴日令, 1841~1911)과 아버지 응재공(應齋公) 엄주용의 각별한 교육열에 힘입은 바가 크다.¹⁰⁾ 9세에 처음 형을 따라 마을 서당에서 공부를 시작하였다. 그는 학문이 완성되는 과정까지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며 공부하였다. 그의 사승관계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8) 이형성,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良齋學 계승성 일고 - 欽齋 崔秉心과 敬窩 嚴命涉을 중심으로 -」, 『조선후기 호남의 역사와 문화』, 전북대학교 이계연구소, 2020.

9) “自幼穎悟.” 權用禹 撰, <敬窩嚴先生紀蹟碑文>.

10) “考諱壽容, 業農, 惟教子致誠.” 權用禹 撰, <敬窩嚴先生紀蹟碑文>.

표 1 <엄명섭의 사승관계>

나이	장 소	스 승	내 용
10세	?	蘭谷 曹漢承	『十八史略』
11세	擇村塾	柳氏 어른	『自治通鑑』
12세	湖山齋	小松 晉瑩奉	『資治通鑑』, 『小學』
15세	?	栗菴 李起琳	『孟子』
16세	麗澤堂	芝谷 楊秉雲	『大學』, 『中庸』, 『杜詩』
17세	?	族叔 庸齋公	『論語』, 『詩經』
18세	南原 杯山	竹師 張柄晦	『詩經』, 『書經』, 『周易』
41세	全州 玉流洞	欽齋 崔秉心	謁贊 師事

엄명섭은 10세에 지곡 조한승(蘭谷曹漢承) 어른에게 『십팔사략』을 읽었고, 11세에 인근 택촌(擇村)서당에서 유씨(柳氏) 어른에게 『자치통감』을 읽었다. 12세에 호산재(湖山齋)에서 소송 진영봉(小松晉瑩奉) 선생에게 『자치통감』 및 『소학』을 배웠고, 15세에 율암 이기림(栗菴李起琳) 선생에게 『맹자』를 배웠다. 16세에 쌍교촌(雙橋村) 이택당(麗澤堂)에서 지곡 양병운(芝谷楊秉雲) 선생에게 『대학』, 『중용』, 『두시』와 함께 논설과 시 짓는 법을 배웠다. 17세에 당숙 용재공(庸齋公)에게 『논어』와 『시경』을 배웠고, 18세에 남원군(南原郡) 배산(杯山)에서 죽사 장병희(竹師張柄晦) 선생에게 『시경』, 『서경』, 『주역』을 배웠다.

그가 21세 되던 해 고향에 금산서사를 열고 비로소 후학을 지도하기 시작하여¹¹⁾ 41세까지 인근마을에 있는 약천(藥川)서당을 오가면서 초학자를 가르치고[訓蒙] 깨우쳐 이끌어주었다.[啓導] 그는 일찍부터 율곡 이이 선생과 간재 진

11) “九歲春, 舍兄讀書, 從誦兄所讀之書而知之. 至夏隨兄入塾, 讀書習字, 每於地上畫, 書壁面柱頭, 無非筆墨之痕. 甚至以竹釘, 畫字于房土上面, 無一隙餘地. 十歲, 偕兄受學, 于蘭谷曹丈, 讀至『史略』, 十一歲, 偕兄讀書, 于擇村塾留柳丈, 讀至『通鑑』. 十二歲, 偕兄受學, 于湖山齋留晉小松先生, 讀自『通鑑』及『小學』五卷. 十五歲, 學于栗菴李公, 讀『孟子』七卷而誦之. 十六歲, 受學于雙橋村麗澤堂, 留芝谷楊先生, 讀『大學』, 『中庸』及『杜詩』, 略習論說及詩. 十七歲, 學于族叔庸齋公, 讀『論語』及『詩傳』七卷. 十八歲, 始從竹師張先生, 讀『詩』, 『書』, 『易』. 二十一歲, 始教人于金山書塾. 二十一歲, 始教人于金山私塾” 엄명섭, 『舜山日記』, <舜山日記餘錄>.

우 선생을 사숙하였고¹²⁾, 해방 후 학문이 완성되어가는 불혹(不惑)에 전주(全州) 옥류동(玉流洞) 금재 최병심 선생을 찾아가 예를 올리고 가르침을 청하였다. 그 후 1970~80년대 전주향교 명륜당과 동재, 1990년대 전주 송천동 사저(私邸) 송천서사(松川書舍, 우가재(尤可攄))에서 교학활동을 하였다. 2000년 다시 전주향교에서 두어 해를 머무르며 초학을 지도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2003년 98세의 일기로 그는 초학의 교학활동을 모두 마쳤다.

엄명섭은 ‘공교막부(孔教莫負)’ 네 글자를 자기의 사명으로 삼고 항상 ‘사무사 무불경(思無邪無不敬)’ 여섯 글자는 몸에 가까운 벽에 걸어놓고 일상에서 실천하였다. 지난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의 단발령과 강제징용을 피하기 위해 서울과 황해도 등지에서 객고를 여러 해 치르기도 하였다. 그는 일제강점기, 조국광복, 한국전쟁 등 근현대 격변기를 살았다. 그는 현실에서 경학의 단절이라는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일평생 초학자를 가르치고 깨우쳐 이끌어주며 오로지 경학에만 온 정성을 다하였다.

경와 엄명섭의 유저(遺著)에는 언해본(諺解本)과 저술(著述)이 있는데 언해본에는 『동몽독본 언해(童蒙讀本諺解)』 단행본, 『격몽요결 언해(擊蒙要訣諺解)』 단행본, 『명심보감 언해(明心寶鑑諺解)』 단행본, 『효경 언해(孝經諺解)』 단행본, 『소학 언해(小學諺解)』 5책, 『사서삼경 언해(四書三經諺解)』 35책이 있다. 그리고 저술에는 『사서삼경 독서기의(四書三經讀書記疑)』 9책, 『순산일기(舜山日記)』 3책, 유고 시문집 『경와사고(敬窩私稿)』 상·하 2책이 있다.

2.2 『경와사고』

경와 엄명섭의 유고(遺稿) 『경와사고』는 처음은 훗날 문집으로 간행하려고 그가 생전에 글을 문체별로 손수 적어 정리한 전체 6권의 필사본이었다. 엄명섭 사후 큰 아들 엄재무(嚴裁武, 1932~2006)는 선고(先考)의 유고가 하나 들쭉 흩어져 사라질까봐 금산서사 문하생 명신계(明信契) 계원들과 함께 고심하

12) “東國以來有二人，石潭元氣白山眞，性師心弟淵源的，千古斯文此立身。” 엄명섭, 『敬窩私稿』, <讀河西金先生詩>.

였다. 이에 유고를 영인(影印)하여 두 책으로 간행하였는데 현재 전하는 『경와 사고』 상·하이다.

논자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경와사고』 전체구성과 수록된 문체별 작품 수를 다음 표 2와 같이 정리하여 보았다.

표 2 『경와사고』의 구성과 내용

영인본	필사본	문체	작품 수
상	권1	詩	오언절구 5제 6수
			오언율시 3제 4수
			칠언절구 486제 537수
			칠언율시 261제 274수
	권2	書	236통
	권3	書	35통
	권4	雜著	雜著 48편, 序 11편, 記 22편, 祭文 11편
하	권5	墓道文	碑文 9편, 墓碣銘 36편, 墓誌 1편, 墓表 31편
	권6	墓道文	墓表 6편, 行狀 11편, 行錄 5편, 傳 7편, 輔善錄

권1은 시 755제 821수가 실려 있다. 배열순서는 근체시 형식을 따라 지어진 시기별로 오언절구 5제 6수, 오언율시 3제 4수, 칠언절구 486제 537수, 칠언율시 261제 274수이다. 권2와 권3은 전체 서(書) 271편으로, 금재선생과 경학의 의심 부분을 조목하고 옹고 그림을 바로잡는 내용으로 시작하였다. 이어 고재 이병은(顧齋李炳殷), 송담 여규철(松潭呂圭澈), 성당 박인규(誠堂朴仁圭), 회당 허병(悔堂許柄), 극재 변복원(克齋邊復源) 등 여러 사우들과 학문을 논의하고, 제자들에게 근황을 묻고 있다. 권4는 제자들과 자제들에게 학문에 힘쓰라는 경계와 부지런히 독서할 것을 권장하는 잡저로, 자경(自警)과 자계(自戒), 금산서사 및 약천서당 학과의 규정과 규칙, 간재의 <성사심제설(性師心弟說)>에 대

한 자신의 견해 <성천심지설(性天心地說)> 등 제자들에게 보여준 학설 48편이 있다. 이외 <염재집서(念齋集序)> 등 서(序) 11편, <청호기(淸湖記)> 등 기(記) 22편, <우당선생문집습유발(尤堂先生文集拾遺跋)> 등 제발(題跋) 8편, <자계명(自戒銘)> 등 명(銘) 8편, <기우축(祈雨祝)> 등 고유축문 11편, <제금재선생문(祭欽齋先生文)> 등 제문 11편이다. 권5는 묘도문(墓道文)으로, <금산군증현록대부전주이공신도비명(金山君贈顯祿大夫全州李公神道碑銘)> 등 비문 9편, <증통정대부승정원좌승지김공묘갈명(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金公墓碣銘)> 등 묘갈명 36편, <고조고낙도와부군묘지(高祖考樂道窩府君墓誌)> 묘지(墓誌) 1편, <증가선대부이조참판운송김공묘표(贈嘉善大夫吏曹參判雲松金公墓表)> 등 묘표 31편이다. 권6은 묘표 6편, 행장 11편, 행록(行錄) 5편, 전(傳) 7편이 있고, 부록은 자신이 교학한 문하생의 인적사항을 간략하게 기록한 <보선록(輔善錄)>이다.

3. 엄명섭의 경학실천

엄명섭은 초학자가 처음 금산서사에 들어오면 공부하는 경계의 글을 삼으라고 칠언절구 한 수를 지어주었다. 그의 한시는 이렇게 지어준 시가 유고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¹³⁾ 주요 내용은 첫째 성학(聖學)에의 열망, 둘째 경(敬)의 공부, 셋째 권학(勸學)이다. 엄명섭은 이처럼 자신의 경학정신에 입각하여 초학자가 학문에 임하는 태도를 칠언절구시를 가지고 경계하게 하였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엄명섭의 시 칠언절구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그의 경학실천을 크게 세 가지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3) 『경와사고』의 칠언절구는 전체 486題 537首이다. 그 중 초학자가 서당에 입학할 때 지어준 경계의 시는 170여 수며 200여 명의 제자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

3.1. 성학에의 열망

엄명섭이 추구하는 경학의 궁극적 목표는 사람은 누구나 성현의 지위에 도달하는데 있다. 그는 평소 공자(孔子)와 안자(顏子)가 즐겨하신 도를 초학자들에게 강조하였다. 본 절에서는 엄명섭이 성학에 열망¹⁴⁾하는 모습을 초학자들에게 어떻게 보여주었는지 살펴보았다.

分明此理細心看	분명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이 이치
成性未前苟易難	본성 앞에서는 진실로 다스리기 쉽다네.
爲問孔顏何所樂	공자와 안자가 즐겨하신 도는 무엇인가
簞瓢屢空意常安 ¹⁵⁾	단표가 자주 비어도 마음은 늘 편안하네.

엄명섭은 성학의 도인 공자와 안자의 도를 열망하고 추구하였다. 먼저 공자와 안자가 즐겨하신 도의 실재는 무엇인가를 자문하고 있다. 그것은 일단사일표음(一簞食一瓢飲)하는 안자의 안빈낙도와도 일맥상통하였다. 때문에 그는 초학자 정의택(鄭宜澤)에게 “공자와 안자가 즐겨하신 도는 무엇인가 / 단표가 자주 비어도 마음은 항상 편안하네.”라고 하였다. 또 초학자 김경두(金京斗)에게는 “안연이 순임금 되려는 마음을 우리가 먼저 얻었으니 / 끝까지 뜻을 세우고 함께 가기를 바라네.¹⁶⁾”라고 하여 제자와 함께 안자의 도를 이야기하며 성학에 힘쓰자고 하였다.

14) 엄명섭의 聖學에 대한 熱望은 종종 그의 꿈에 現夢한데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 몇 사례를 살펴보면 “정이천 선생을 꿈에 찾아뵈었는데, 글을 가르치는 법이 여차여차하니, 너는 문장이 없음을 흠으로 생각하라고 하였다.[夢拜伊川先生, 敎文法云云. 汝以無文爲欠者也.]” 엄명섭, 『순산일기』, 1951년 8월 7일 일기 참조. “봄꿈 달게 이루고 자양선생에게 인사하니, 나를 불러 약을 주며 자상케 잘 가르쳐주었네. 전날 마음의 병을 다스릴 때 생각나, 혜산천 1장을 감사하며 암송하였네.[春夢甘成拜紫陽, 呼余貽藥誦諄長. 恭惟昔日治心病, 感誦惠山泉一章.]” 엄명섭, <記夢>, 앞의 책. “하루는 새벽꿈에 문왕을 뵈었는데 연사로 끈 작은 삭을 나에게 주면서 ‘너는 이것을 조심히 지키어라’고 하였다.(是日晨夢見文王, 以素練絲小索, 贈之曰: ‘汝謹守之云.)” 엄명섭, <尤可攄 偶吟> 二首, 앞의 책, 頭註 참조 등등이 있다.

15) 엄명섭, <詠贈鄭宜澤>, 앞의 책.

16) “希舜顏淵先獲我, 願終立志與歸同.” 엄명섭, <詠贈金京斗>, 앞의 책.

道學由來元有本 도학의 유래 원래부터 근본이 있으니
 五常四勿是爲本 오상과 사물 그 근본이 되네.
 孜孜行敬或無違 힘써 경을 행하여 혹여 어김이 없으니
 千聖萬賢貫一本¹⁷⁾ 천만성현은 한 근본으로 도를 꿰었네.

엄명섭은 성학의 도는 근본이 일상생활의 오상(五常)과 사물(四勿)에 있다고 보았다. 유교의 도덕에서 기본이 되는 다섯 가지 덕목 오상은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을 말한다. ‘사물’은 공자가 안자에게 대답한 극기복례하는 방법으로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¹⁸⁾ 네 가지를 말한다. 이와 같은 오상과 사물은 일상생활을 벗어나 있지 않고 경(敬)에 근본이 되니 천성만현(千聖萬賢)이 경 하나로 도를 꿰고 실천하였다고 여겼다. 때문에 엄명섭은 성학의 도를 초학자 정해동(鄭海同)에게 “힘써 경을 행하여 혹여 어김이 없으니 천만성현은 한 근본으로 도를 꿰었네.”라고 하였다.

엄명섭은 자신의 금산서사와 인근 마을 약천서당을 오가면서 초학자를 가르치고 깨우쳐 이끌어주었다. 하루는 제자들에게 횡거 장재(橫渠張載) 선생의 시 <성심(聖心)> 운자로 시를 지어 성학의 의의와 가르침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였다.

群英爲學日相求 못 영재들 배우며 날마다 의기투합하고
 一塾多年舊要修 한 서당에서 옛 벗과 여러 해 몸을 닦네.
 莫負眞源孔教義 공교의 의의 참 근원을 저버리지 말고
 願將詩禮比優遊¹⁹⁾ 시와 예를 가지고 넉넉하게 노니길 바라네.

위의 시는 엄명섭이 인근 마을에 있는 약천서당 제자들에게 보여준 시이다.

17) 엄명섭, <詠贈鄭海同>, 앞의 책.

18) 『論語』, <顏淵>에 보인다.

19) 엄명섭, <詠贈諸生用橫渠先生聖心韻>, 앞의 책.

엄명섭은 여러 해 서로 의기투합하며 공부하는 제자들에게는 공교(孔敎)의 의의를 저버리지 말라하고 스스로 경계삼고 자신의 소임으로 간주하였다. 또 엄명섭은 공자가 “나는 하늘을 원망하지도 않고 사람을 탓하지도 않는다. 아래로는 사람의 일을 배우고 위로는 하늘의 이치를 터득하려고 노력하는데, 나를 알아주는 분은 아마도 하늘뿐일 것이다.”²⁰⁾고 한 말을 가지고 초학자 김철중(金喆鍾)에게 “성학은 저 위에서부터 시작하니 / 공교의 소임 다른데서 구하지 말라.”²¹⁾고 하였다. 그는 이처럼 성학을 무조건 믿고 열망하며 경학을 독실하게 공부하였다.

太古時生動樂山	태고 때 생겨난 동악산 ²²⁾
億千年去景凝間	억 천년 흘러도 경승이 모여 있네.
魯城一地今移此	노나라 한 지역 지금 이곳으로 옮겨오니
好看人人學孔顏 ²³⁾	공자 안자의 도 사람마다 배워 좋을시고

엄명섭은 평소 자신의 교학처 금산서사와 약천서당을 공교가 살아있는 학당으로 자부하였다. 그래서 자신이 거처하는 동악산(動樂山) 약천에 노나라 곡부를 옮겨와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학처는 사수(泗水)가의 행단(杏壇)으로 만들었다. 엄명섭은 이곳 약천서당에서 “박문약례의 마음 다하여 재주를 이룬 뒤 / 공자와 안자 참으로 즐겨하신 바를 찾아 사모하리라.”²⁴⁾고 하고 공자와 안자의 도가 살아 숨 쉬는 자신만의 경학세계를 구축하고 성학에 열망하였다.

1956년 일찍이 엄명섭은 금재선생에게 금산서사의 명명을 부탁한 적이 있었다. 선생이 지명과 경치에 대하여 묻자 “마을 이름은 원래 금산(金山)인데 새로 금산(琴山)으로 개명되었습니다. 주산(主山)은 순산(舜山)이고 남쪽 들관

20) “不怨天，不尤人。下學而上達，知我者，其天乎。”『論語』，〈憲問〉。

21) “聖業做來從那上，願任孔敎勿他求。” 엄명섭，〈詠贈金喆鍾〉，『경와사고』。

22) 전남 곡성군 입면의 主山으로 舜山麓과 藥川麓이 있는 마을 뒷산을 말한다.

23) 엄명섭，〈詠贈柳仁洙〉，앞의 책。

24) “盡心博約成才後，慕素孔顏所樂真。” 엄명섭，〈詠贈西門誠勤李潤燮·黃圭洙·朴訓進〉，앞의 책。

은 요곡(堯谷)이나 순산과 요곡의 글자는 본래 순(巡)과 요(蓼)였지만 소자가 순(舜)과 요(堯)로 바꾸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²⁵⁾ 이는 그가 성학에 얼마나 열망하고 있는가를 보여준 또 다른 사례였다.

欲學聖人始自何	성인을 배우려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朱書一部道無差	주자의 글 한 곳도 도에 어긋남이 없네.
眞知實踐爲其法	실천이 그 법임을 참으로 아니
克己求仁義最佳 ²⁶⁾	극기복례 인을 구하는 뜻 매우 아름답네.

엄명섭은 그가 열망하는 성학의 시작은 아는 것보다 먼저 실천하는데 있음을 제자들에게 강조하였다. 그가 본 주자의 글은 어느 한 곳도 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극기복례’하며 인의 도를 구하는 공부에 성학의 시작임을 제자들에게 명시하였다. 또 엄명섭은 “성학을 마치면 화이를 분변하고 / 인간과 금수의 경계 여기서 나누어지네.²⁷⁾”라고 하여 성학을 화이(華夷)의 분변과 금수(禽獸)의 경계로 삼았다.

이상 본 절에서는 엄명섭이 성학에 열망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가 있는 산과 들은 요순의 천하였다. 그가 초학자를 가르치고[訓蒙] 깨우쳐 이끌어주는[啓導] 금산서사와 약천서당은 그에게 사수가의 행단이였다. 그는 공자와 안자가 호학하고 즐겨하신 도가 무엇인지 궁구하여 실천할 것을 제자들에게 강조하였다. 그의 성학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운 일상에 있는 오상과 사물을 실천하는 극기복례이자 인의 도를 구하는 공부였다. 결국 엄명섭은 ‘인(仁)’의 도리를 자득하고 극기복례의 공부인 경학을 실천하며 성학에 열망하였다.

25) “是歲九月十九日往拜全州先生。廿一日侍先生，着寫師稿時，請先生以書舍命名之義。先生問地名景致。命涉對以村名金山新改琴山。主峯則稱舜山，南坪名堯谷，而舜山堯谷字，本巡與蓼，小子換以舜與堯也。” 엄명섭, <金山書舍起立及命名說>, 앞의 책.

26) 엄명섭, <詠贈崔典栗>, 앞의 책.

27) “聖功終看華夷辨，人獸界防自此分。” 엄명섭, <詠示諸生>, 앞의 책.

3.2. 경(敬)의 공부

엄명섭은 주자(朱子)가 ‘경’의 공부는 천만번 강조하여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²⁸⁾고 한 말을 제자들에게 경계를 삼도록 하였다. 본 절에서는 그가 ‘경’의 공부에 대한 확신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설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天理在人心小中	천리가 사람의 조심하는 마음에 있다는
此言偶出講道中	이 말이 강론하는 도중에 우연히 나왔구나.
道源大意君自得	도원의 큰 뜻 너는 자득하였으니
願子擴充上天中 ²⁹⁾	그대가 하늘에 넓히고 채워가기를 바라노라.

위의 시는 엄명섭이 초학자 박옥래(朴玉來)에게 조심하는 마음의 공부가 하늘의 이치요 도의 근원이 되는 자신의 경학(敬學)정신을 말하였다. 하루는 초학자 박옥래와 강론하는 도중에 제자가 도의 근원 공부가 조심하는 마음속에 있음을 우연히 알았다. 엄명섭은 초학하는 제자가 내심으로 대견하게 보였다. 이에 그는 초학자 박옥래에게 ‘경’의 공부를 그대가 천하에 확충하기를 바란다 고 칭찬하였다. 한편 엄명섭은 초학자 유기수(柳奇洙)와 정해동(鄭海同)에게는 “배움은 뜻을 세움에 완전해야 하니 시간이 갈수록 한결같은 마음 더욱 돈독하게 하라.³⁰⁾”고 하여 ‘경’의 공부는 뜻을 세움에 완전하고 또 독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一言蔽盡禮三千	곡례의 삼천을 한마디 말로 다하는
以敬貫來體自肅	경으로 일관하니 절로 체득 되었네.
爲學終論心本性	학문은 심이 성에 근본 함을 주장하고
斯門眞訣此惟傳 ³¹⁾	사문의 참 비결은 오직 이를 전할 뿐.

28) 朱熹, <齋居感興> 오언고시 20수 참조.

29) 엄명섭, <詠答朴玉來>, 앞의 책.

30) “學來立志必要完, 去去一心益自敦.” 엄명섭, <詠贈柳奇洙·鄭海同>, 앞의 책.

31) 엄명섭, <詠贈柳奇洙>, 앞의 책.

위의 시는 초학자 유기수에게 “사람의 기본적인 예의 3백이요, 구체적인 예절 3천인데, 그 정신은 하나다.³²⁾”라고 한 『예기』의 구절을 가져와 ‘경’의 공부를 강조하였다. 엄명섭은 ‘경’의 공부를 가지고 하나로 꿰면 몸에 굳은살이 박이는 것처럼 학문은 저절로 체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일찍부터 천우(田愚)를 사숙해 온 엄명섭은 학문은 마음이 본성에 근본 한다는 천우의 학설³³⁾을 사문의 참다운 비결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엄명섭은 제자라면 누구나 ‘경’의 공부가 습관화된 학문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초학자 유기수가 ‘경’의 공부에 더욱 힘을 쓸 것을 당부하였다.

守身大本敬爲先	몸을 지키는 대본 경으로 우선 삼고
動靜審來一念先	동정을 살펴보는 일념으로 우선하라.
省察萬機能合理	일만 기미 성찰하는 이치에 부합하니
此心終作樂仁先 ³⁴⁾	마음은 끝내 인을 즐기는 도 우선인걸.

위의 시는 큰아들 엄재무와 초학자 정해동에게 ‘경’의 공부로 자기 몸을 지켜 가라고 권면하였다. ‘경’의 공부는 몸을 지키는 큰 근본이 됨으로 너희들은 마땅히 ‘경’의 공부를 우선 삼아 일의 동정을 자세하게 살펴야한다고 하였다. 이는 모든 일의 성패를 짐작케 하는 기미를 성찰하는 이치와도 부합한다고 하였다.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경’의 공부가 인의 도를 즐기는 최우선이라고 하였다. 결국 엄명섭은 이 시를 통하여 ‘경’의 공부가 인의 도를 즐기는 성학의 공부임을 큰 아들 엄재무와 초학자 정해동에게 강조하여 권면하였다.

敬工極處發聰明	경의 공부 지극하면 총명을 개발하고
然後必看學可成	그런 뒤라야 반드시 학문을 이룬다네.
孝義汝知終始否	효도의 의의 처음과 끝 어디인지 알까

32) “經禮三百, 曲禮三千, 其致一也.” 『禮記』, <曲禮>.

33) 心本性說을 기본으로 하는 性尊心卑說 또는 性師心弟說을 가리킨다.

34) 엄명섭, <詠贈長子武兼示儼海同>, 앞의 책.

視無形且聽無聲³⁵⁾ 보이도 형체 없고 들어도 소리 없는데.

위의 시는 엄명섭이 ‘경’의 공부가 효도의 시종과 상통하고 있음을 보고 효도와 연계하여 강조하였다. 먼저 ‘경’의 공부가 지극하면 총명하고 반드시 학문의 성공을 이룬다고 하였다. 때문에 “나의 몸은 부모에게 받았으니, 함부로 헐거나 다치게 하지 않는 일이 효도의 시작이요, 입신하여 도를 실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떨치어 부모의 이름까지 드러내는 일이 효도의 마지막이다.³⁶⁾”라고 한 『효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 초학자 박종하(朴從夏)에게 효도로서의 ‘경’의 공부를 강조하였다.

이상 본 절에서 엄명섭은 제자들에게 학문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보다 ‘경’의 공부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공자는 여러 제자들의 같은 질문에 그 제자들의 결여된 점을 들어서 대답해 주었다. 엄명섭 또한 한 초학자는 천리와 도의 근원을 가지고, 한 초학자는 몸을 지키는 큰 근본을 가지고, 한 초학자는 효도의 처음과 끝을 가지고서 그 초학자마다의 실정에 맞는 ‘경’의 공부를 강조하면서 자신은 경학을 실천하였다.

3.3. 권학(勸學)

엄명섭은 초학자의 본분은 학업에 있으니, 초학자는 마땅히 부지런히 독서하고 힘써 공부하여야 함을 강조하며 권학(勸學)하였다.

勤讀自愈愚	부지런히 독서하면 우둔함은 절로 치유되는데
何須患無才	하필이면 재주 없다고 걱정하느냐.
從此無休學	지금부터 쉬지 않고 배우면
可成一大儒 ³⁷⁾	큰선비를 이룰 수 있느니라.

35) 엄명섭, <詠贈朴從夏>, 앞의 책.

36) “身體髮膚，受之父母，不敢毀傷，孝之始也。立身行道，揚名於後世，以顯父母，孝之終也。” 『孝經』, <開宗明義章>.

37) 엄명섭, <詠謁朴基烈讀書>, 앞의 책.

위의 시는 초학자 박기열(朴基烈)이 스스로 재주가 없다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부지런히 공부할 것을 권학한 시이다. 엄명섭은 초학자 박기열에게 맹자가 공부를 중단하고 돌아왔을 때 마침 베를 짜던 어머니가 그 베를 칼로 자르며 “네가 공부를 중단한 것은 내가 이 베를 자른 것과 같다.³⁸⁾”라고 한 전거를 먼저 말하였다. 이어서 맹자가 이를 경계하고 학업에 더욱 분발하여 대유(大儒)가 되었듯이 초학자 박기열은 재주 없음을 탓하지 말고 부단한 노력으로 공부하면 어리석음은 절로 치유되니 힘써 부지런히 공부하여 큰 선비가 될 것을 권학하였다.

分陰爭惜學初成	촌음을 다투어 아끼면 배움은 이루어지고
纔失好期誤一生	문득 호기를 잃으면 일생을 그르치네.
人義盡從詩禮得	도의를 시와 예에서 다 아니
立身自有孝賢名 ³⁹⁾	성공하면 절로 효의 어진 이름 있네.

위의 시는 어려운 역경에서도 힘써 부지런히 공부한 도간(陶侃)의 전거를 가지고 초학자 유영근(柳永根)을 권학한 시이다. 엄명섭은 초학자 유영근에게 “대우는 성인인데도 촌음을 아꼈으니, 보통사람들의 경우 응당 분음을 아껴야 한다.⁴⁰⁾”라고 한 전거와 주자가 “소년은 늙기 쉽고 학업은 이루기 어렵나니 / 촌음의 시간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⁴¹⁾”고 한 권학의 말을 함께 들어서 경계하였다. 그리고 사람의 도의는 시(詩)와 예(禮)에서 다 알 수 있으니 성공하면 효도의 명성이 세상에 드러난다고 하였다.

또 엄명섭은 두 초학자 조비환(曹毳煥)과 김중호(金中瑚)에게 권학하면서 “글을 읽음에 반드시 스스로 분음을 아껴어라 / 그런 뒤에라야 바야흐로 깊은 학문에 나아가 이를 수 있다.⁴²⁾”고 하였다. 그리고 초학자 김판철(金判喆)에게

38) “子之廢學 若吾斷斯織也。”『列女傳』, 권1 <鄒孟軻母>.

39) 엄명섭, <詠柳永根>, 앞의 책.

40) “大禹聖者, 乃惜寸陰, 至於衆人, 當惜分陰。”『晉書』 권66, <陶侃列傳>.

41) “少年易老學難成, 一寸光陰不可輕。”朱熹의 <偶成>.

는 “너는 혹 성공하는 법을 아느냐 / 오직 한결같은 성실과 근면이 곧 법이라
네. 대우도 역시 촘음을 아졌으니 / 어찌 오늘 내가 남의 법을 그르다고 하겠는
가.”⁴³⁾라고 칠언절구시를 지어주어 권학하였다.

汝今成學譬爲山	너의 공부 산을 만드는데 비유하니
九仞功爭一簣間	아홉 길 이룬 공 한 삼태기를 다투네.
進止專由吾決意	이룰지 말지는 너의 결의와 연유하니
願將經籍讀循環 ⁴⁴⁾	경전을 반복하여 읽기를 바라네.

위의 시는 학문의 성공은 제자 자신의 결의에 있음으로 권학하였다. 엄명섭은 초학자 이복재(李卜宰)에게 “작은 행실에 조심하지 않으면 끝내 큰 덕에 누를 끼쳐서, 아홉 길 높이의 산을 만드는데 공이 한 삼태기의 흙이 모자라서 무너진다.”⁴⁵⁾라고 경계한 『서경』 <여오(旅獒)>의 전거를 들어 권학하였다. 그리고 초학자 이복재의 공부가 구인산(九仞山)과 같아 한 삼태기의 흙이 부족하여 무너질 수도 있으니, 그 성패는 초학자 이복재 자신의 결의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엄명섭은 이처럼 학문의 성공이 제자 자신의 결의와 상관하니 부지런히 힘써 공부할 것을 권학하였다.

이상 본 절에서 엄명섭은 초학자가 부지런히 힘써 공부하는 것으로 경계를 삼아 권학을 강조하였다. 또 학문의 성공이 구인산의 공처럼 제자 자신의 결의에 있다고 초학자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본장에서 논자는 엄명섭의 경학실천을 살펴보았다. 그의 칠언절구시를 중심으로 나타난 경학실천은 크게 성학에 대한 열망, ‘경’의 공부, 힘써 부지런히 공부하라는 권학으로 구분되었다. 성학에 대한 열망은 공교막부의 소

42) “讀書必自惜分陰，然後方成就學深” 엄명섭, <詠讀書惜分陰，贈曹琵琶·金中瑚>, 앞의 책.

43) “問君倘識成功法，惟一誠勤卽是法。大禹亦爲惜寸陰，豈非今日吾人法。” 엄명섭, <詠贈金判喆>, 앞의 책.

44) 엄명섭, <詠示李卜宰>, 앞의 책.

45) “不矜細行，終累大德，爲山九仞，功虧一簣.” 『書經』, <旅獒>.

임아래 초학자를 가르치고 깨우쳐 이끌어주는 그의 경학실천이었다. ‘경’의 공부부는 초학자의 몸을 지키는 근본과 효도의 시작과 끝으로 그의 경학실천이었다. 힘써 부지런히 공부하라는 권학은 초학자 누구나가 성현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그의 경학실천이었다. 때문에 초학자는 재주 없음을 두려워말고 힘써 부지런히 학문하면 절로 공자와 안자 같은 성인이 되어 그들이 즐겨하신 도를 즐길 수 있다고 하였다.

4. 엄명섭의 시에 나타난 현실세계

엄명섭은 근현대 초기에 태어나 일제 강점기의 강압 상황, 해반(解絆)⁴⁶⁾, 전쟁, 외국문화 유입과 보편화로 인하여 한국이 변화해가는 상황 등을 모두 겪었다.⁴⁷⁾ 그러나 엄명섭의 『순산일기』에는 그의 나이 40세 이전의 일기가 없어서 유년기와 청년기의 시대적 고찰에 어려움이 있다.⁴⁸⁾ 따라서 본 장에서는 엄명섭의 시에 나타난 그의 현실 세계를 유학자의 우환의식으로 연계하여 근현대 한 문인의 내심을 조명하여 보았다. 논의에 앞서 당시 현실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선행연구 이은혁의 「경와의 우환의식과 수기복례」⁴⁹⁾에서

46) 이는 엄명섭 자신이 저술한 모든 글에서 사용한 말이다. 그는 해방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았다. 解絆과 解放의 발음은 거의 비슷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해반을 줄곧 쓴 것으로 보아 그가 일제 강점기를 ‘ 묶어서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때’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7) 김기림, 「敬窩 嚴命涉 삶과 활동들에 대한 考察」, 『(2019 문헌세가 학술대회) 근현대기 호남 학자의 강학활동-敬窩 嚴命涉』, 한국학호남진흥원, 2019, 42~43쪽.

48) 엄명섭의 일기는 1946년 8월 16일 스승 欽齋 崔秉心선생에게 가르침을 부탁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순산일기』의 첫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始拜欽齋崔先生于玉流洞而請教 先生許之 …(中略)… 時島夷退伏 始二年, 而洋人滿市, 主新學者, 敢斥舊學甚急, 先生曰: 彼教授輩, 都無學識, 不知有禮義廉恥, 只自趨時附勢如此 每顧世道, 正可憂歎” 엄명섭, 『舜山日記』, 1946년 8월 16일 참조.

49) 이은혁, 「敬窩의 憂患意識과 修己復禮」, 『(2019 문헌세가 학술대회) 근현대기 호남 학자의 강학활동-敬窩 嚴命涉』, 한국학호남진흥원, 2019, 25쪽.

예시한 당시의 시대적 상황 일부분을 다음에 소개하였다.

경와의 우환의식은 한말의 대학자 간재 전우(1841~1922)로 거슬러 올라간다. 간재가 일제강점기 계화도에 은거하면서 후학을 지도한 일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제자 금재 최병심(1889~1957)은 일제강점기에 유교적 전통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심히 우려를 표하였다.

요즘 사람들은 유교가 쓸데없기 때문에 폐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놓고 말합니다. 저들이 제향을 철폐하고, 서원을 부수고, 글방을 없애고, 향교를 폐쇄하고, 의복을 바꾸고, 머리를 깎게 하는 것은 모두 같은 맥락의 일입니다. 오랑캐가 左腹으로 들어가 재앙이 막두하였는데, 지금 만약 그대로 내버려두고 항쟁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유학의 종자를 보존할 수 있는 날은 영영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4천년 道脈이 끊어지느냐 이어지느냐 하는 갈림길이요, 삼천리 儒類들이 생존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시기입니다.⁵⁰⁾

금재가 1918년(戊午)에 간재에게 보낸 편지글이다. 유교적 전통을 말살하려는 일제의 정책을 비판하고, 이로 인하여 유학의 도맥이 단절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절절하게 토로하고 있다. 일제의 강압적인 정책으로 세도가 막히고 인심이 험악해져 무력함을 보이며 서로 헐뜯다가 급기야 유교무용론까지 대두하는 등 유학적 전통이 절대적 위기를 맞고 있음을 우려하였다. 유학이 전래된 이래 면면히 이어져 온 도학의 맥이 끊기고 이어지는 기로(岐路)에 있고, 그 이념을 신봉하며 따랐던 유학자들이 존망의 갈림길에 처해 있다는 말에서 우환의식이 극에 달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상 선행연구에서 예시한 유학자 간재와 금재 앞에 놓인 당시 시대적 상황은 경와 엄명섭의 청소년기에 해당된다. 그의 현실은 간재와 금재의 우환의식

50) 『欽齋文集』前篇 권3, 「上良齋先生(戊午·1)」, “且時輩揚言“儒教無用, 不可不廢” 彼撤亭·毀院·罷塾·廢校·改服·薙髮, 是其一串貫事也. 夷入左腹, 火已迫頭, 今若任它, 不爲抗爭, 則吾儒種子, 永無可保之日矣. 此政四千年道脉斷續之機, 三千里儒類存亡之秋也.” 선종순 외, 『금재문집』1, 호남고전문학연구원·전라북도·전주시, 2018, 343~344쪽.

에 나타난 것처럼 구학이 사라져가고 유학이 사라져가고 있었다. 다음은 엄명섭이 1955년에 지은 시 〈유정부⁵¹⁾ 위씨 독락당에 차운하며 말구에 작은 생각을 붙이다〉이다.

遯跡藏名物外遊	은둔하여 이름을 숨기고 세상 밖에서 유유하려는
此情豈與俗人謀	이 뜻을 어찌 속인과 도모하라.
林泉窈窕神隨爽	요조한 임천의 정신 때마다 맑아지고
風月灑灑與別幽	소쇄한 풍월의 감흥 유달리 그윽하네.
克己盡時眞可樂	극기복례 다할 때 참으로 즐거운 걸
爲仁得處更何求	인을 얻은 곳에서 다시 무엇을 구하라.
惟吾道學多蓁茂	우리 도학 생각하면 진무함이 많은데
天下未憂我自憂 ⁵²⁾	천하가 걱정하지 않아 나만 스스로 걱정하네.

엄명섭은 신학문이 밀려오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근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속인(俗人)이라고 통칭하였다. 수련에서 그는 새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취와 이름을 감추고 세상 밖에서 살아가려는데 이 마음을 속인과 어떻게 도모하라 하였다. 함련에서는 자신이 임천(林泉)에서 생활하는 즐거움을 말하였고 이어 경련에서는 스스로 경학의 세계로 다시 돌아와서 인의 도리를 임천에서 구하였는데 다시 이곳에서 무엇을 바라라 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자꾸만 변화하였다. 그러므로 미련에서는 자신이 그토록 갈망한 경학의 세계가 진무(蓁茂)해졌고 성학[道學]은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무도 걱정하지 않으니 홀로 걱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엄명섭은 근현대에서 경학의 세계와 성학[道學]이 함께 사라져가는 현실이 자꾸만 걱정되었다. 다음은 <세상을 걱정하며 읊은 감회> 시이다.

51) 游定夫는 二程의 제자로, 이름은 酢이고 定夫는 그의 字이다. 호는 鴈山으로, 福建省 建陽 사람이다.

52) 엄명섭, <次游定夫韋氏獨樂堂韻 末寓微意>, 앞의 책.

河清及日幾多時	태평성대 ⁵³⁾ 얼마나 될까
不覺卷中老白衣	나도 모르게 책 속에서 백의 ⁵⁴⁾ 로 늙어가네.
變夏用夷那忍視	중화가 오랑캐 됄을 어찌 차마 보고
無君有國適安歸	임금이 없는 나라 어디로 돌아갈꼬
蘭生幽谷聞香遠	난초는 깊은 계곡에 자라 멀리 향기를 뿌리고
鳳下天風擇止枝	봉황은 하늘의 바람에 내려와 가지를 가려 앉네.
爲己終知爲學義	위기지학으로 배움의 의의 끝내 알고서
懷珍何損識人稱 ⁵⁵⁾	보배로 품으니 무엇이 손해이라 이는 이 드무네.

엄명섭은 젊어서부터 전통서당 금산서사에서 공교막부를 자기책임으로 삼아 초학자를 금산서사와 인근 마을 약천서당에서 교학하였다. 그러므로 수련에서는 엄명섭은 자신도 모르게 책 속에서 늙어 감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또 태평성대는 얼마나 되었을까? 공자와 안자의 도에 도달하려는 성학의 세계는 그에게 있어서 오래가지 않았다. 그 까닭은 태어나 얼마 되지 않아 국권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그는 다시 성학의 세계로 달려가려고 하였으나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구학문은 자꾸만 사라져가고 신학문은 파도처럼 밀려 왔다. 함련에서 엄명섭은 중국이 오랑캐 됄을 차마 볼 수 없었고 임금이 없는 나라가 되었으니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 탄식하였다. 경련에서는 스스로 봉황이 되어 나뭇가지를 가려 앉아보기도 하고 난초가 되어 바람이 불지 않는 깊은 계곡에서 스스로 그윽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미련에서는 엄명섭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문화, 새로운 학문에서 위인지학(爲人之學)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자신은 위기지학(爲己之學)의 의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갔다고 하였다.

엄명섭은 이처럼 새로운 현실에서 경학의 세계와 성학에 대한 열망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홀로 경학을 걱정해야 하는 것처럼 외롭고

53) ‘河清’은 태평성대를 뜻한다. 魏나라 李康의 〈運命論〉에 “黃河清而聖人生.”라고 하였는데, 그 주석에 “黃河千年一清, 清則聖人生於時也.”라고 하였다.

54) ‘白衣’는 곧 백의를 입은 使者를 가리키는데, 陶潛의 고사에서 왔다.

55) 엄명섭, <憂世感吟>, 앞의 책.

냉혹하였다. 때문에 그는 자꾸만 경학이 단절되어가는 현실에서 안타까워하였다. 다음은 경와 엄명섭이 지난날을 돌아보며 지은 <감회> 시이다.

世道偃偃與我違	세상의 도 창창 ⁵⁶⁾ 하여 나와 어긋나니
隱居耕讀守冠衣	은거하여 주경야독하며 의관을 지키려네.
棲樑新燕知飛習	들보에 사는 새끼 제비 나는 법 익히어 알고
出谷晚鶯喚友歸	계곡을 떠난 저녁 피꼬리 벚을 부르며 돌아오네.
早歲經綸衛正路	젊음의 경륜 바른 길을 지키고
暮年間趣付畚畝	늙음의 정취 밭떼기를 주었네.
千秋賢業知何在	천년의 어진 공부 어디에 있을까
夢覺一關識者稀 ⁵⁷⁾	몽교관 ⁵⁸⁾ 아는 자 드무네.

엄명섭은 경학의 세계를 찾아가려고 먼저 들보에 사는 새끼 제비처럼 푸른 하늘을 나는 법을 익혔다. 계곡 숲을 떠난 피꼬리가 해가 저물면 친구를 부르며 보금자리로 돌아오듯이 그는 은일자적 독서하며 의관정제 하는 길 밖에 없었다. 경련에서는 스스로 지나온 세월 되돌아보니 젊어서는 초학자와 교학상장하면서 바른 도를 지키었다. 늘그막의 한아한 정취는 임천에서 사는 것처럼 전원으로 돌아와 있었다. 아! 천년의 경학과 성학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은 격물치지(格物致知) 성의정심(誠意正心) 대학의 공부를 알까? 스스로 감회에 젖어 제비가 되기도 하고 꼬꼬리가 되기도 하였다.

엄명섭의 이처럼 안타까운 현실세계는 힘센 고양이와 처마 밑 등지의 제비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는 광경을 우연히 목격한 것과는 흡사하였다. 다음은 1992년 팔순 노인이 되어 우가재(尤可叟)에서 지은 <부화하는 제비를 슬퍼하다>⁵⁹⁾이다.

56) ‘偃偃은 어디로 가야 할 지 모르는 모습을 형용한 말이다. “偃乎其何之” 『禮記』 〈仲尼燕居〉.

57) 엄명섭, <感懷>, 앞의 책.

58) “格物夢覺關, 誠意人鬼關.” 『大學章句』 經1장 小註.

59) 엄명섭, <哀伏燕>, 앞의 책.

年年每見舊巢尋	해마다 옛 둥지 찾아움을 매번 보고
賀語喃喃致意深	지지배배 축하소리에 극진한 뜻이 깊네.
審汝又今孚伏卵	네가 또 지금 었드려서 부화하는 걸 보니
被貓酷奪慘何堪	고양이 참혹한 약탈 참담함을 어떻게 할꼬

위의 시는 해마다 봄이 되면 둥지를 찾아와 새끼를 치는 제비를 보고 지은 시이다. 어미제비는 엄명섭을 보고 반갑다고 인사하고 둥지 안에 들어가 새끼 알을 품었다. 그러나 현실세계는 경학을 꿈꾸는 한 유학자에게 냉정한 것처럼 힘센 고양이가 둥지에서 부화하는 어미제비를 앞으로 자꾸만 괴롭힐 것이다. 어미제비는 참담한 마음을 어떻게 이겨낼까? 엄명섭은 암담한 미래의 참혹을 다 아니 슬픈 마음이 절로 일어나 시를 지어 어미제비 마음을 달래주었다. 시간은 흘러가 마침내 힘센 고양이는 부화하고 있는 어미제비와 새끼 알을 참혹하게 빼앗아가고, 또 둥지까지 망가트렸다. 인하여 가족을 잃은 수제비는 담장을 떠나지 않고 망가진 둥지를 향해 슬피 울어대니 이 또한 엄명섭에게는 차마 하지 못할 일이었다. 이 날 감회를 읊은 시 <외로운 제비를 조문하다>⁶⁰이다.

失侶不勝獨自悲	짝을 잃은 아픔 이기지 못하고 절로 슬퍼져
時棲架上向巢啼	때가 되면 서가에 올라 둥지를 향하여 우네.
感傷此意因天性	아파하는 이 마음 천성 때문이니
爲作一詩代慰辭	시 한 수를 지어 위로하는 말 대신하노라.

위의 시는 힘센 고양이에게 가족을 잃고 혼자가 된 수제비의 외로움을 읊은 시이다. 그는 봄날 제비가족의 현실에서 성학에 열망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엄명섭은 자신이 구축한 경학의 세계에서 현실이 슬프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다. 말 못하는 수제비는 때가 되면 가족이 그리워 둥지를 향해 울어댔다. 그는 이를 차마 볼 수 없는 측은지심으로 수제비의 천성(天性)을 위하여 그

60) 엄명섭, <巾孤燕>, 앞의 책.

리고 자신을 위하여 시 한 수로 조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삭이었다.

이상 본 장에서는 엄명섭의 전체적인 현실인식을 논의하지 못하고 시에 나타난 현실세계를 유학자의 우환의식과 연계하고 근현대 한 문인이자 유학자로서의 내심을 조명하였다. 엄명섭의 현실세계는 자신이 구축해 놓은 경학세계에서 내심 임천에 은둔 우유자적하고 성학에 호학하며 열망하였다. 그는 경학을 실천하며 오로지 초학자를 교학하면서 사문을 진작하려고 술이부작(述而不作) 책 속에서 늙어갔다.

5. 결론

엄명섭은 근현대에 태어나 유학자 전우(田愚)를 사숙하였고 유학자 최병심(崔秉心)을 스승으로 섬기었다. 그는 국권이 상실된 일제강점기와 동족상잔의 비극 한국전쟁을 체험하였다. 근대식 학교교육 신학문[국문학]의 시작으로 서당식 전통교육 구학문[한문학]이 단절되어가는 시대를 살며 유학을 진흥하려고 후학을 양성하였다. 그는 경학을 중시하며 유학자다운 호학을 견지하였다. 일평생 서당교육을 통하여 초학자를 가르치고[訓蒙] 깨우쳐 이끌어주고[啓導] 유고 『경와사고』와 『순산일기』를 남겼다. 유고의 한시는 대부분 금산서사에 입학한 초학자들에게 지어준 칠언절구였다. 시의 내용은 초학자의 학문 자세가 자신의 경학(經學)정신에 입각한 성학(聖學)에의 열망(熱望)과 ‘경(敬)’의 공부(工夫), 권학(勸學)에 대한 경계(警戒)가 전부였다.

엄명섭은 전통유학이 단절되어가는 현실에서 성학에 대한 열망으로 자기중심의 경학세계를 구축하였다. 그는 ‘성천심지(性天心地)’라는 자기만의 성리학적 학설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하늘에 근본 하는 ‘성(性)’과 ‘심(心)’을 성학에서 배워야 함을 강조하면서 성은 하늘이요, 심은 땅이라고 하였다. 또 하늘이 부여한 착한 본성을 회복하려면 극기복례하는 ‘경’의 공부를 돈독하게 실천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가 학문하는 궁극적 목표는 성학의 지위에 도달하는 데에 있었다. 때문에 제자들에게 ‘경’의 공부를 힘써 부지런히 하면 절로 성인의 경지에 도달한다고 하였다. 한편 초학자는 우선적으로 재주 없음을 두려워 말라고 경계하였다. 스스로 안자처럼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을 독실하게 먹고 부지런히 공부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여 성인이 즐겨하신 도를 즐길 것이라고 하였다. 일찍이 공자는 노나라 곡부에서 인의 도를 실천하였고 엄명섭은 금산과 약천에서 풍속을 교화하였다. 공자는 사수의 행단에서 3천여 제자를 교학하였고 엄명섭은 금산서사에서 9백여 초학자를 교학하였다. 이처럼 그는 유학자로 공교막부를 소임으로 삼고 경학을 호학하며 자족(自足)하며 살았다.

논자는 지금까지 경와 엄명섭의 시를 단편적으로 고찰하면서 그의 시 칠언 절구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경학실천을 먼저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에서 나타나는 현실세계를 유학자의 우원의식과 연계하여 근현대 문인이자 유학자의 내심을 미력하게나마 조명해보았다. 그러나 그의 한시가 근현대한문학사에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는 한걸음도 다가서 논의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의 경학에 대한 내적 열망과 현실인식 전반에 대한 궁구에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자는 부끄러움을 감추고 차후 근현대 문인으로서의 그에 대한 연구가 더해지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1. 자료

『敬窩私稿』

『舜山日記』

박혜범, 『歷史千字文』, 박이정, 2005.

『論語』

『朱子全書』

『禮記』

『書經』

『孝經』

『烈女傳』

『晉書』

2. 논문

김기림, 「敬窩 嚴命涉 삶과 활동들에 대한 考察」, 『(2019문헌세계학술대회) 근현대기 호남 학자의 강학활동-敬窩 嚴命涉』, 한국학호남진흥원, 2019.

이은혁, 「敬窩 嚴命涉의 學問과 良齋思想의 理解」, 漢文古典研究 第33輯, 韓國漢文古典學會, 2016. 12.

(UCI : G704-002001.2016.33.1.007)

_____, 「敬窩의 憂患意識과 修己復禮」, 『(2019문헌세계학술대회) 근현대기 호남 학자의 강학활동-敬窩 嚴命涉』, 한국학호남진흥원, 2019.

이형성, 「敬窩 嚴命涉의 守道的 儒學繼承과 心修養」, 『(2019문헌세계학술대회) 근현대기 호남 유학자의 강학활동-敬窩 嚴命涉』, 한국학호남진흥원, 2019.

_____,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良齋學 계승성 일고 -欽齋 崔秉心과 敬窩 嚴命涉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호남의 역사와 문화』,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2020.

정옥재, 「日帝强占期 沈衡鎭의 『朝鮮歷史千字文』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22집, 2009.

(UCI : G704-001808.2009.22.010)

| Abstract |

Gyeong Wa Um Myeong-Sep's poetry expressed the practice of study of confucian classics and the real world

Um, Chan-yeong

Honam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Researcher.

Um Myeong-Sep(嚴命涉) taught many students through village after school as the late Joseon Dynasty a moralist. He left posthumous works that 『Gyeong Wa sago(敬窩私稿)and Sun San Diary(舜山日記』. Most of his poems given to students. His poems are a passage consists of seven(七言絶句). The contents of the poems include aspiration for studying abroad, a study of the 'moral mind', and an emphasis the fact that students (first learning) encourage learning is the right attitude to study. He lived in modern times where his sovereignty was lost, his study abroad was destroyed, and the ideology of right and left was confronted. He adjusts one's clothing as a classical scholar, and he did not keep his the ordinance prohibiting topknots. He walked on the path of a modern and contemporary Confucian scholar, seeing with both eyes the reality that study of the 'moral mind' was cut off. He expressed his regret that his world of study of the 'moral mind' disappearing in poems and calmed his anger by teaching the 'love of learning' and beginners.

key words : aspiration for studying abroad(聖學熱望), study of the 'moral mind'(敬의 공부), encourage learning(勸學), love of learning(好學), first learning and teaching(初學訓蒙)

투고일 : 2020년 7월 30일 심사기간 : 8월 1일 - 8월 21일 게재확정일 : 8월 22일

